

“소규모 학교, 통폐합보다 유지를”

전북교육청 중심 ‘학령인구감소와 교육정책 소위원회’, 정책 필요성 제안

전북교육청이 중심이 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정책 소위원회’가 코로나 19 이후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 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학령인구감소와 교육정책 소위원회’는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중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전북교육청 추천 위원 8명, 타시도 추천 위원 8명, 전문가 추천 2인 등 총 18명으로 구성,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학령인구 감소 실태 상황에 기초해 초·중등교육의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소위원회는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가 저출산이라는 자연적 요인 위

에 학령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이라는 사회적 인구감소 요인이 겹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고, 문제 해결 방법에 접근했다.

먼저 소위원회는 집중형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분산정책을 제안했다.

학령인구 추세를 반영한 학급당 정원(20명 이하) 및 학생수 상한제를 도입하고 도시지역 과대 과밀학교에서 우선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전입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입학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73조(중학교의 전

학 등)에 조항을 신설 시·도교육청에서 공동통학구의 효율적 운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반영해 작은 학교 유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는 ▲면·도서·벽지지역 초중고교는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중·고교는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고교는 300명 이하를 통폐합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학교 통폐합 시 중·고교 기준 최대 11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위원회는 “소규모 학교를 지속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지역사회 인구 감소와 소멸의 악순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 분산 정책으로 특색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이렇게 할 때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문화적 삶의 질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령인구감소와 교육정책 소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다시 한 번 보고될 예정이다. /정은성기자

거점국립대 법전문장협의회장에 송양호 전북대 법전문장 선출

전북대학교는 송양호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거점국립대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2월까지 1년이다.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는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의 법전문장들이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 및 정책을 개발하는 협의체다.

법전문장 송양호 법학전문대학원장 및 공동입학설명회, 면접시험 방법,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공동

채점, 지거국 모의시험 출제, 지역 균형선발전형 등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통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25개 로스쿨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질의와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역할 수행을 위해 1년에 분기별 회의 및 긴급회의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하고 있다.

송양호 원장은 “임기동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역거점국립대학교의 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법학전문대학원권의 향상과 우수 법률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대회 1년 연기 결정’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예산·인력 구조조정 예고

내년 사업비 20억원 삭감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대회를 사실상 1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 대회 일정 절차 및 업무·인력 조정에 들어갔다.

조직위 사무처는 지난 24일 대회 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문체부 협의 위원총회를 거쳐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IOC 공인단체)의 최종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사업비를 삭감 조정, 지난 11월 도의회에 제출된 54억원의 예산 중 대회 연기절차에 따라 사업비 20억원을 조정해 34억원(국비 11억원, 지방비 2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대회 협력체계 구축 ▲운영지원 및 인력 확보 ▲상징물 개발 및 활용 ▲시군 경기종목 및 경기장 선정 ▲대회 참가자 모집 및 홍보 등 대회 준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직위 사무처 조직 및 인력도 감축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제승인돼 2021년 7월로 계획된 2단계(30명→60명) 직제개편을 1년 늦춘 2022년 7월로 조정하고, 현재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10%를 우선 감축하기로 했다. 도 및 시군의 파견인력도 소속기관의 의견을 들어 인력을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이강오 조직위 사무총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대회 일정이 연기되는 등 어려운 여건으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며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과 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는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 주최로 열리는 전 세계 생활체육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70개국에서 28,000여명이 참가한다.

/정은성기자



전북대학교 우현지 대학원생(헬스케어공학과 석사과정·지도교수 권대규)이 최근 열린 2020년 한국정밀공학의 통합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전북대 우현지 대학원생, 한국정밀공학과 ‘최우수’ 논문상

전북대학교 우현지 대학원생(헬스케어공학과 석사과정·지도교수 권대규)이 최근 열린 2020년 한국정밀공학과 통합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학회에서 우현지 대학원생은 ‘슬링을 이용한 스쿼트 운동이 하지 근육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Squat Exercise using Sling on the Lower Extremity Muscles Activation)’이라는 주

제로 슬링을 이용한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발표, 생체공학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현지 대학원생은 “최우수 논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권대규 지도교수님과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이 연구 분야의 성과를 위해 꾸준히 연구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밀가공, 로봇제어 자동화, 생체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800여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대 LINC+사업단 김수현 과장, 교육부장관 표창

‘산학협력 EXPO’ 유공자 선정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김수현 과장이 2020 산학협력 EXPO에서 산학협력 유공자로 선정,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표창은 산학협력 교육 및 인력양성 및 산업체와의 협력 사업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 과장은 2006년부터 산학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전주대 LINC+사업단에서 사업팀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의 산학교육혁신 플랫폼 HATCH 교육과정



의 확산 및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산학협력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통찰력 인재 양성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김수현 과장은 “LINC+사업단 구성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며, “대학의 4차 산업혁명 전문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전북교육청,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강화

자살 예방 온라인 교육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우울감 및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 사례가 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 지원에 적극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2월 31일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원 5,000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온라인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게이트키퍼란 자살 위험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적절한 전문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하고, 또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고 듣고 말하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교육은 자살예방 교

육에 관심이 있는 대상은 누구나(14세 이상) 수강 가능하며, 도교육청 전용 교육 사이트(<http://jbspkorea.edu.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보가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 확인 ▲특기 실제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 경청 ▲말하기-안전점 검목표를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도움 의뢰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서 우울감과 소외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생명지킴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